한성기 백제 지방성으로서의 충주 장미산성 검토*

양시은** · 이승우***

Ⅰ. 머리말
Ⅱ. 한성기 백제 지방성과 확장 가능성 검토
Ⅲ. 충주 지역 한성기 백제 성곽의 출현과 운영
Ⅳ. 공간분석을 통해 본 한성기 백제 충주 장미산성의 구조
Ⅴ. 맺음말

【국문초록】

충주 지역은 충청과 영남 지역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을 지나는 주요 육상 교통로가 있는 곳이자,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을 따라 배를 타고 한성에 다다를 수 있는 한강 수로의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 주요 철 산지로서, 원삼국시대부터 제철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이 지역을 차지했고, 충주 장미산성 역시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충주 장미산성은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인 장미산 정상부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현존 성벽의 전체 둘레는 2.94㎞이다. 해당 성곽은 신라가 충주 지역에 진출한 6세기 중반 이후에 축성된 것이나, 산성에서는 조족문 토기를 비롯한 한성기 백제 토기나 고구려계 철촉이 수습된 바 있어 그 이전 시기에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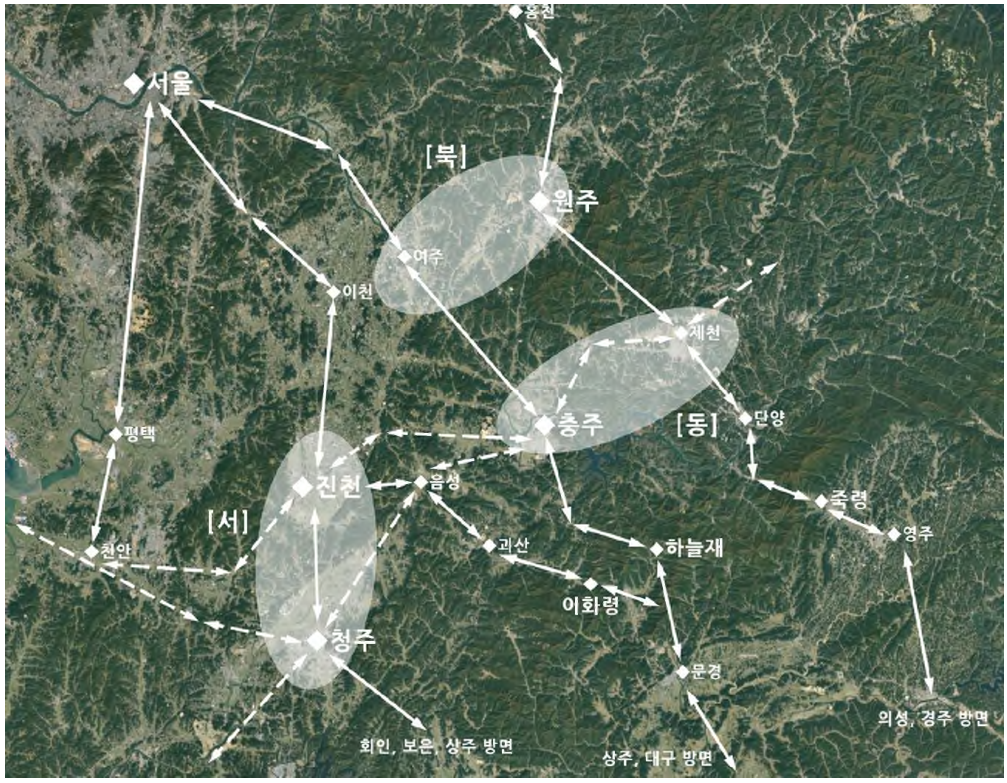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장미산성의 북쪽 성벽 발굴조사 과정에서 석축 성벽 아래로 토루와 함께 관련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주 장미산성을 대상으로 한성기 백제 지방성으로서의 가능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2185)
** 제1저자: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제2저자: ㈜테라픽스 연구원

주제어 : 충주, 장미산성, 한성백제, 신라, 중원역사문화권

Ⅰ. 머리말

중원역사문화권의 핵심 지역인 충주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이어주는 소백산맥의 계립령로(충주-문경)와 조령로(괴산-문경)를 비롯한 인근의 죽령로(단양-풍기) 등 주요 육상 교통로가 지나가는 남북 교통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이 흐르는 곳으로, 배를 타고 한성에 다다를 수 있는 한강수로의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충주 지역은 주변의 모든 수륙교통로의 결절지이자 남한강과 달천의 합류지로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철 산지로서 고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삼국시대에도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이 지역을 차지했으며, 충주 전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주요 권역 및 교통로(ⓒ성정용)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인 장미산 정상부에 축조된 충주 장미산성 역시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존하는 석축 성벽을 기준으로 하면, 장미산성은 전체 둘레가 2.94km인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해당 성곽은 신라가 충주 지역에 진출한 6세기 중반 이후에 축성된 것이나, 산성에서는 조족문 토기를 비롯한 한성기 백제 토기나 고구려계 철촉이 수습된 바 있어 그 이전 시기부터 산성이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학술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장미산성의 북쪽 성벽에서 석축 성벽 아래로 토루와 관련 유구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주 장미산성을 대상으로 한성기 백제 지방성으로서의 가능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성기 백제 지방성과 확장 가능성 검토

한성(漢城)에 도읍을 둔 시기의 백제를 지칭하는 '한성백제'는 주지하다시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에 따르면, 온조가 강 남쪽의 위례성(河南 慰禮城)에 도읍을 정한 시점은 기원전 18년이고, 장수왕이 군사 3만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점령한 시점은 475년이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의 초기 기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는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있는 한(韓)에 대한 기사나 3세기 이전 한성이 자리한 서울 지역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양상이 고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475년 기사에는 백제 한성이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간의 고고학 조사 결과로 보면 북성은 몽촌토성, 남성은 풍납토성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풍납토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박중균, 2021, 101~103쪽), 최근에는 3세기 후반설과 4세기대설로 압축되는 모양새이다.

3세기 후반설은 풍납토성 내에서 확인된 3중 환호의 폐기 시점이 3세기 중반~후반이므로, 풍납토성의 축조 상한은 3세기 중반 또는 후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순발 2002: 12~13쪽). 해당 견해는 성곽의 출현과 한성백제 토기의 성립 시점을 백제의 국가형성 시점과 연결시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영(2011, 154쪽)은 풍납토성 출토 시유도기와 전문도기의 연대로 볼 때 백제 토기의 출현 시점을 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면서도, 중국 자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지면 4세기 초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이성준(2013: 66쪽)은 풍납토성 동성벽의 층서에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OSL연대측정 결과를 연계한 결과, 초축 성벽은 3세기 중후반~4세기 초반의 어느 시점에 착공하여 4세기 전반~중반 사이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박중균(2021, 119쪽) 역시 동성벽 중심 토루 기저부 조성층 및 3중환호 출토 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풍납토성은 4세기 중엽~후엽

의 어느 시점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한성백제에 대한 시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성기 백제 지방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한성백제기를 4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점령당한 475년까지로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고대 국가에서 성은 기본적으로 적을 막는 군사적 방어시설이었지만 지방 통치를 위한 행정 치소로도 사용되었다. 백제 역시 국가 성립기부터 축성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성곽 68개소 중 32개소가 한성기에 해당하며, 「광개토왕릉비」에는 396년에 광개토왕이 백제의 58성 700촌을 공취(攻取)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성기 백제는 최소 58개가 훨씬 넘는 수의 성곽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기 백제 성곽임이 확실하게 밝혀진 유적은 그보다 훨씬 적은 20여개소 가량으로 문헌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표 1).

[표 1] 한성기 백제 성곽 현황표

연번	명칭	고도(m)		둘레	축조	형식	주변하천
		해발	상대	(m)	재료		
1	파주 육계토성	21	5미만	1,858	토축	평지성	임진강
2	고양 멱절산토성	29	24.3	300	토축	구릉성	장항천
3	포천 고모리산성	386	190	967	토축/석축	산정식산성	포천천
4	양주 독바위보루	181	59	453	토축	산정식산성	청담천
5	서울 풍납토성	25	5미만	3,470	토축	평지성	한강
6	서울 몽촌토성	43	25	2,285	토축	구릉성	한강
7	서울 삼성동토성	83	37	?	토축	구릉성	한강
8	이천 효양산성	188	155	1,500	토축	산정식산성	복하천
9	화성 길성리토성	112	87	2,311	토축	포곡식산성	황구지천
10	화성 소근산성	144	121	629	토축	산정식산성	진위천
11	안성 도기동산성	78	58	1,400	토축	구릉성	안성천
12	음성 망이산성[1] 내성	472	360	350	토축	산정식산성	청미천
13	충주 탄금대토성	106	35	420	토축	구릉성	남한강
14	충주 장미산성	338	269	2,940	토축	포곡식산성	남한강
15	충주 장태산토성	133	37	398	토축	구릉성	남한강
16	천안 동성산성	238	156	918	토축	산정식산성	광기천
17	증평 추성산성	242	182	429 1,411	토축	산정식산성 복합식산성	보강천
18	당진 성산리산성	67	44	239	토축	구릉성	서해
19	홍성 신금성	60	32	645	토축	구릉성	금리천
20	세종 나성리토성	43	28	310	토축	구릉성	금강
21	완주 배매산성	121	80	526	토축	산정식산성	석탑천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등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 소재한 신라의 일부 석축산성에서 한성기 백제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양상은 충주 장미산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 최근에 개최된 『중원문화권 성곽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2) 학술세미나에서도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징과 함께 백제 관련 유구 및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황보경, 2022)가 있었으나 성벽의 축조 세력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의 경우, 성 내부와 성벽 기저부 다짐토에서 백제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4세기대 백제 석축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김호준, 2018)과 이들 유물은 성벽 축조 시점의 상한을 제한할 뿐 축성 시기나 축성 집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성의 전체적인 구조와 축조기법으로 볼 때 신라의 석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심광주, 2004)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삼족기, 고배, 기대, 심발, 장란형 토기 등의 한성기 백제 토기 및 단각고배, 편병, 주름무늬병, 단경호, 완, 시루, 뚜껑 등의 6세기 후반부터 9세기까지로 편년되는 다양한 신라 토기, 그리고 사선문, 집선문, 어골문 등이 시문된 평기와, 그리고 당나라 의종 때의 연호(860~874년)였던 ‘咸通(함통)’ 6년명(865) 벼루, 보습을 비롯한 철제 농공구류, 동경, 납석제 인장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설봉산성에서는 백제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저장 수혈 다수가, 설성산성에서는 이러한 저장 수혈 외에도 백제 주거지 등이 발견되어 이들 유적에 한성기 백제의 점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한성백제기 석축산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한성기 백제 산성은 토성이 일반적이며 성벽 전체를 돌로 쌓은 석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박중균, 2019, 217쪽).

이는 한성기 백제 토성이 낮은 구릉뿐만 아니라 해발 200m 내외의 높은 산 정상부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음성 망이산성에서는 석축성벽 외에 한성백제기 토루가 별도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천 고모리산성 동벽이나 의왕 모락산성 북벽 등에서는 협축으로 수평줄눈금을 맞추어 축조한 전형적인 신라 성벽과는 달리 내탁식(편축) 구조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으로 수평줄눈금을 맞추지 않고 쌓은 석축 성벽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한성기 백제의 석축 산성으로 보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삼국시대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성기 백제 석축 성곽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성기 백제 토기가 출토된 바 있는 여러 석축 산성의 경우, 지속적인 수축과 개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축성 시기 및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

1) 음성 망이산성 서문지에서는 고려 광종대 연호가 적힌 ‘준풍4년(峻豊四年)’명(936년)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6세기 중반~7세기 삼국 항쟁 당시 망이산성은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동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정빈 2021: 27~28쪽).

이다. 이들 산성의 석축성벽은 축조기법이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대개 신라(일부 통일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적 내에서 한성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한성기에는 이들 유적에 석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어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이승우・양시은, 2022, 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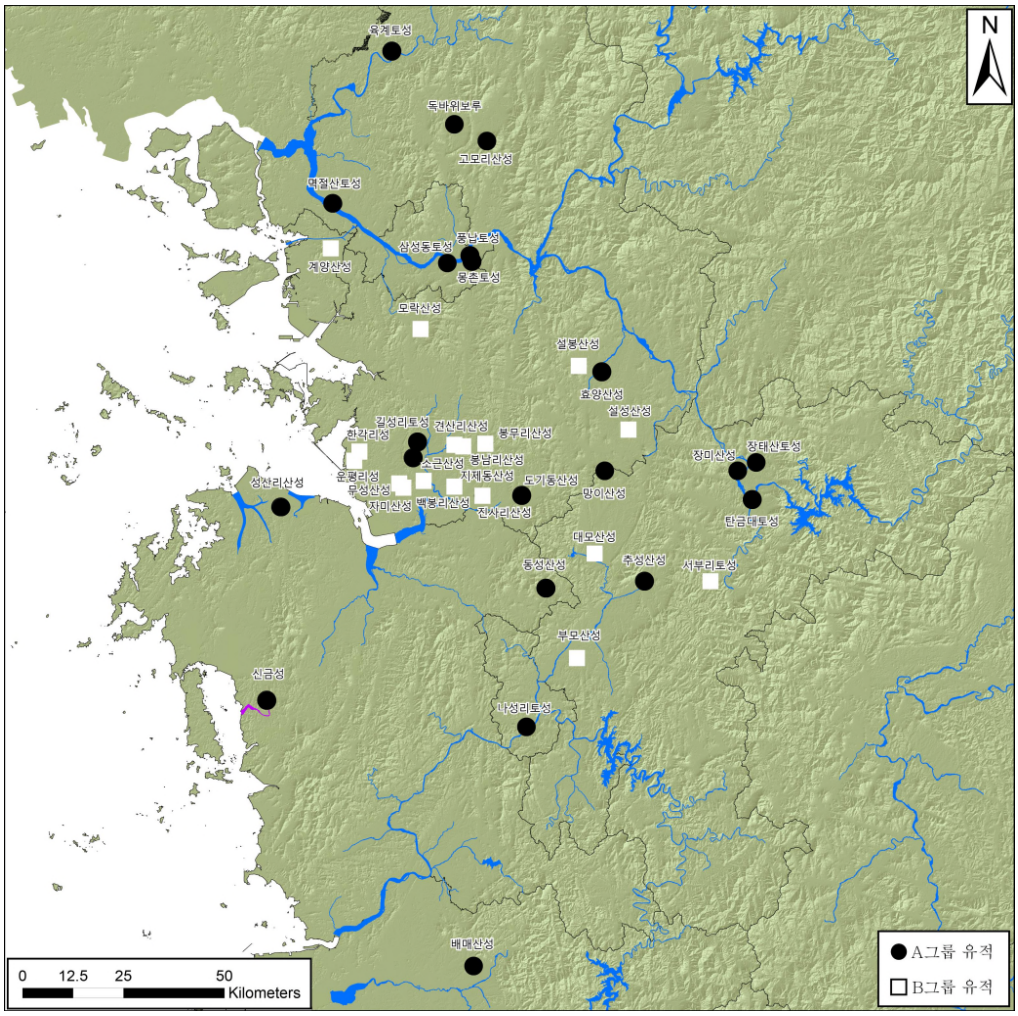
[표 2] 한성기 백제 유물 출토 성곽 현황표

연번	명칭	고도(m)		둘레(m)	축조 재료	형식	주변하천
		해발	상대				
1	인천 계양산성	202	172	1,180	석축	산정식산성	계양천
2	의왕 모락산성	385	333	876	토축/석축	산정식산성	안양천
3	이천 설봉산성	325	265	1,079	석축	산정식산성	복하천
4	이천 설성산성	291	208	1,095	석축	포곡식산성	청미천
5	평택 무성산성	105	82	547	토축	산정식산성	안성천
6	평택 자미산성	111	75	240	석축	산정식산성	안성천
7	평택 백봉리산성	61	51	220	토축	구릉성	진위천
8	평택 견산리산성	50	18	427	토축	구릉성	진위천
9	평택 봉남리산성	122	103	2,788	토축	평산성	진위천
10	평택 지제동산성	56	48	220	토축	구릉성	진위천
11	용인 봉무리산성	101	75	150	토축	산정식산성	진위천
12	안성 진사리산성	57	32	300	토축	구릉성	안성천
13	화성 한각리성	38	16	551	토축	구릉성	서해
14	화성 운평리성	30	19	1,185	토축	구릉성	서해
15	진천 대모산성	100	20	1,260	토축	구릉성	백곡천
16	청주 부모산성1보루	231	187	254	석축	산정식산성	미호천
17	괴산 서부리토성	257	122	401+	토축	산정식/양성	동진천

표 2는 한성기 백제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성곽들을 제시한 것이다. 입지상으로는 상대고도가 10~60m에 해당하는 구릉성과 그 이상인 산성으로 구분되며, 성벽의 축조 재료로는 토성과 석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인천 계양산성은 서해 연안에 배치된 백제의 다른 관방유적과는 달리 가시권역이 내륙을 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계양산성에서는 1호 집수시설에서 원저단경호와 함께 약 14㎝ 크기의 5면의 목릉형 목간 2점이 출토되어 한성기 백제 유물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신라 석축산성 중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 확쇠의 출토 양상으로 볼 때, 북문지의 초축 연대는 6세기 중후엽으로 추정된다(김진웅, 2021, 210쪽).

계양산성 출토 목간에는 『論語(논어)』의 공야장(公冶長)에 나오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및 공반 토기로 인해 한성백제기 목간으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당 목간은 김해 봉황동 출토 목간과 함께 7세기 말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李成市, 2021,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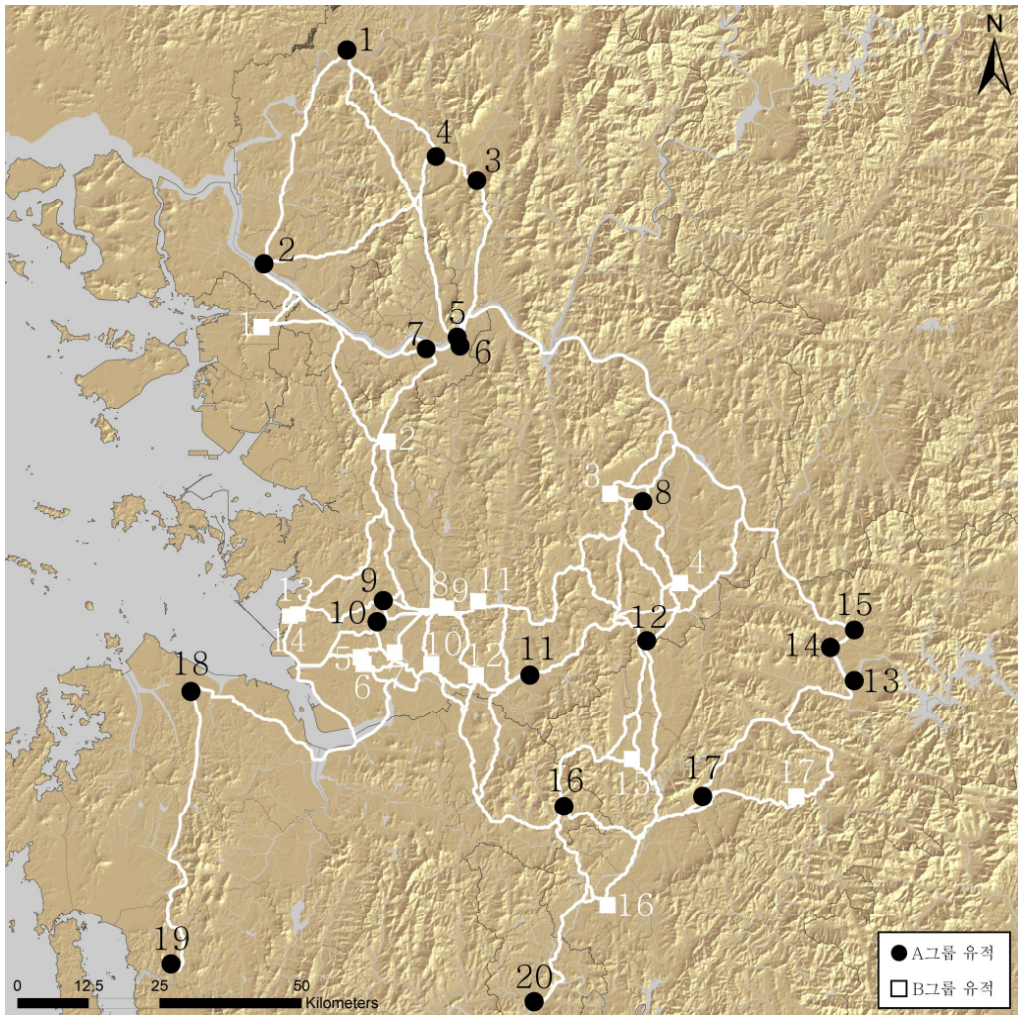


[그림 2] 한성기 백제 성곽 가능 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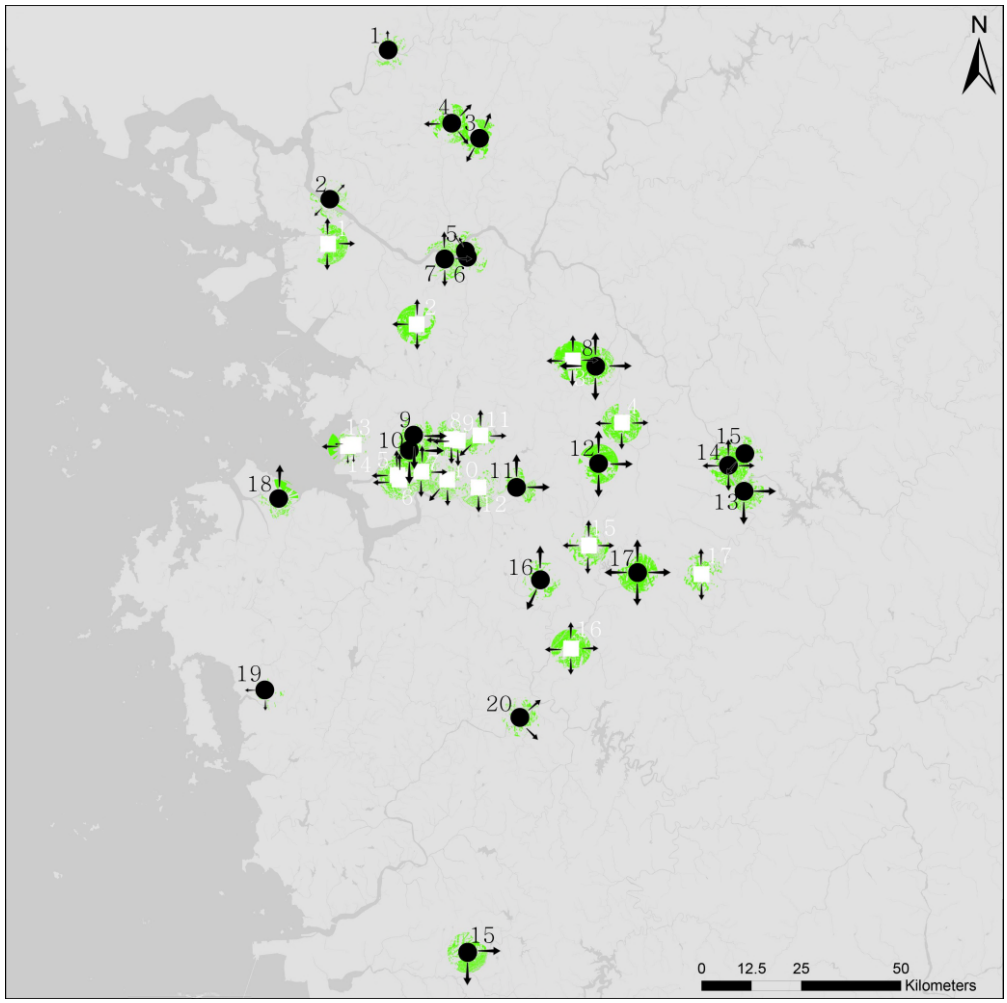
그리고 평택 견산리산성의 경우, 북쪽의 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오산천과 동쪽 내륙지역으로 이어지는 진위천이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물류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성 내부가 아닌 성의 서남쪽 외벽과 이어지는 구릉 일대에서 백제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 백제 관방유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부오, 2018, 199쪽).

사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성기 백제 유물이 출토된 관방유적의 경우 입지와 가시권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성기 백제 성곽(표 1)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선행 연구(이승우・양시은 2022)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구릉에 축조된 관방유적의 경우 한성기 백제 성곽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산지에 축조된 관방유적의 경우에도 계양산성을 제외

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들 관방유적이 토성인 경우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백제의 성곽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한성기 백제 성곽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들 관방유적이 석성인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왕 모락산성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성벽은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통일신라)가 축조하였음이 밝혀진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유적 역시 계양산성을 제외한다면 입지와 가시권역에서 백제 성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바, 음성 망이산성처럼 토루가 있거나 혹은 목책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관방시설이 백제 한성기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 성곽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한성기 백제 성곽의 존재가 문헌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림 3] 한성기 백제 성곽의 최저거리비용 모델



[그림 4] 한성기 백제 성곽 감시권역도(가시권역 5km)

Ⅲ. 충주 지역 한성기 백제 성곽의 출현과 운영

1. 백제 진출 이전

고대 국가 형성기에는 충주 금릉동과 문성리·신효리 등지에서 대규모 토광묘군이 확인되고 있어, 일찍부터 마한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금릉동 일대(금릉동유적, 금릉동 쇠저울유적, 금릉동 301-4번지 유적)에서는 150여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는데, 전반적인 양상은 미호강 유역의 송절동 고분군과 유사하다. 문성리유적에서는 주구토광묘 21기를 포함한 토광묘 70기와 함께 측구식 탄요 18기와 석곽묘 6기가, 신효리유적에서는 토광묘

10기가 확인되었다(윤병엽, 2024, 15쪽). 4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알려진 신효리고분군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들은 대체로 3세기 중후엽부터 4세기 전반까지로 편년된다.

백제의 진출 이전 시기에 충주 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적은 칠금동 제철유적이다. 칠금동유적은 한강 본류와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조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층을 달리하며 제련로 34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제련로는 우선 지면을 굴착하여 굴광면의 바닥과 측면에 목재 구조를 설치한 후 그 위로 점토로 피복하고, 다시 바닥 목재 주변으로 세로목을 설치한 다음 굴착면 전체를 점토로 채웠다. 이후 1차 굴착한 것보다는 작은 크기로 재굴착한 다음 2차 굴광면에 제련로의 하부 구조를 조성하고 그 위로 노벽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국립중원문화연구소, 2020).

이러한 칠금동 제철유적은 빠르면 2세기 후엽 내지는 늦어도 3세기 초엽부터 시작되었는데, 운영 주체는 백제 이전의 재지세력 즉 마한계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철장검이 출토된 칠금동 420번지에서 확인된 토광묘가 주목된다. 칠금동 제철유적 인근의 금릉동 일대에는 3~4세기에 걸쳐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칠금동 제철유적의 중층 및 상층과도 그 시기가 일치한다. 금릉동 집단은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생산된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충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있다(정태현・정락현, 2024, 52~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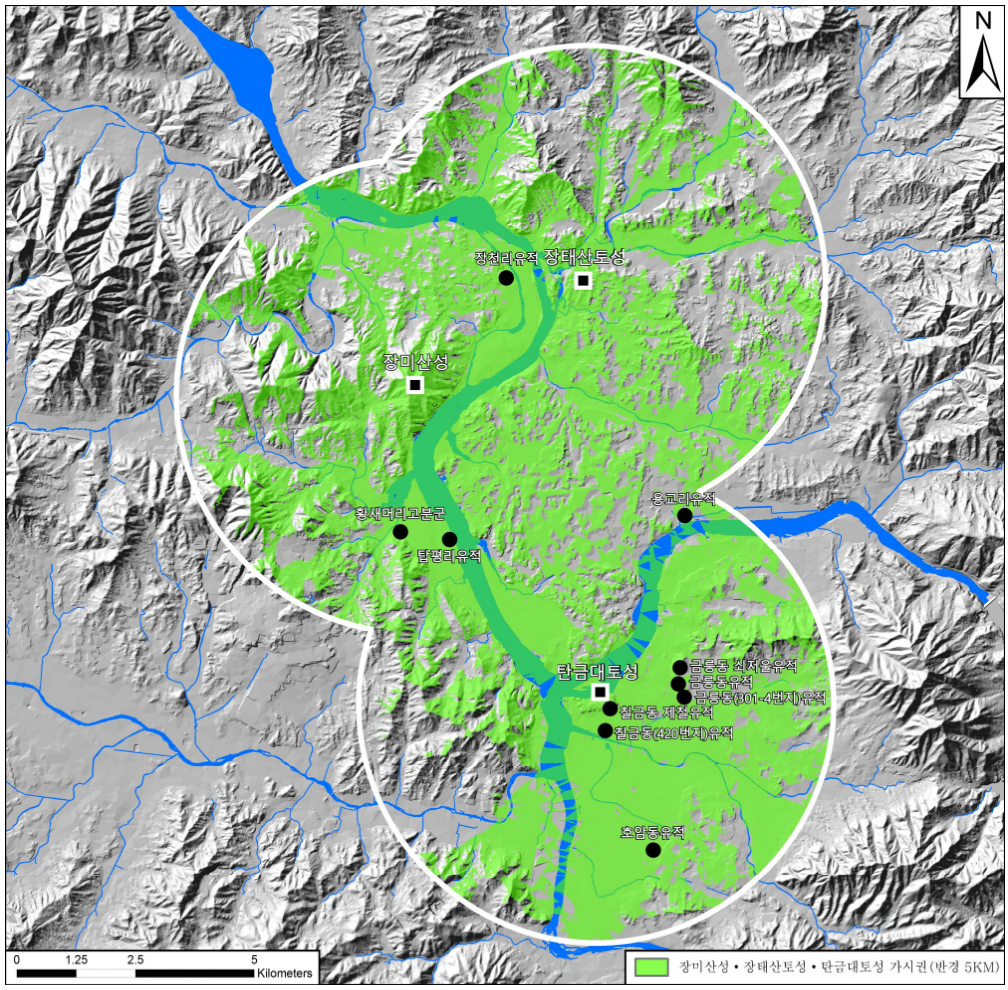
2. 백제 진출 이후

백제는 4세기대에 충주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충주 일원의 탄금대토성과 칠금동 제철유적, 장미산성과 탑평리 취락 및 황새머리 고분군, 그리고 장태산토성 등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

1) 충주 탄금대토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금동유적은 2세기 후엽부터 4세기 후반까지 제철 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공방으로, 4세기 중엽 백제는 남한강의 편리한 수로를 이용하여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칠금동유적의 북쪽 탄금대에 토성을 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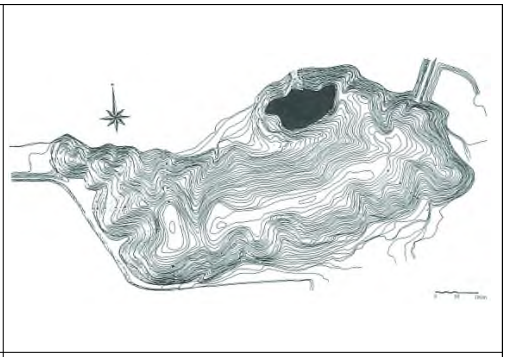
탄금대토성은 성벽의 둘레가 420m인 소규모 토성으로, 남한강과 달천이 합수하는 요충지에 위치한다. 토성의 북쪽과 서쪽은 강변에 접하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과거 하천이었던 곳을 매립한 만큼, 남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하천이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47쪽). 토성은 탄금대 동북쪽 가장 높은 지점(해발 105m)에서 서쪽으로 낮아지는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북쪽을 제외하면 인위적으로 토루를 축조한 구간은 234m 가량이다.



[그림 5] 충주 지역 한성기 백제 성곽의 가시권역(5km) 중첩도

성벽은 중심 토루와 내·외피 토루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 토루는 먼저 경사면의 기저부를 정지하고, 기저부를 굴착하여 외황(外隍)과 내황을 조성하였다. 성토 공정은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회흑색, 회흑갈색 점질토 등을 안쪽으로 차례로 쌓아 올리면서 토제(土堤)를 축조하였다. 그리고 토제 안쪽에 덧대어 비슷한 흙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성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석렬이 시설되었는데, 토제와 성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석렬은 총 7열로, 가장 높은 지점의 석렬을 중심으로 내측으로 4열, 외측으로 2열이 확인된다. 석렬은 토루의 중앙에서 안쪽방향으로 강돌로 열을 맞추어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상면에는 적갈색 사질토와 암적갈색 점질토로 교호성토하여 중심 토루를 완성하였다. 이후 중심 토루 상면에는 내·외피 토루가 조성되었는데, 황갈색 사질토를 이용하여 중심 토루 전체를 마치 피복하듯이 마무리하여 쌓았다(이솔언, 2023, 11쪽).

① 항공사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0: 대표사진4)



② 위치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도15)

[그림 6] 충주 탄금대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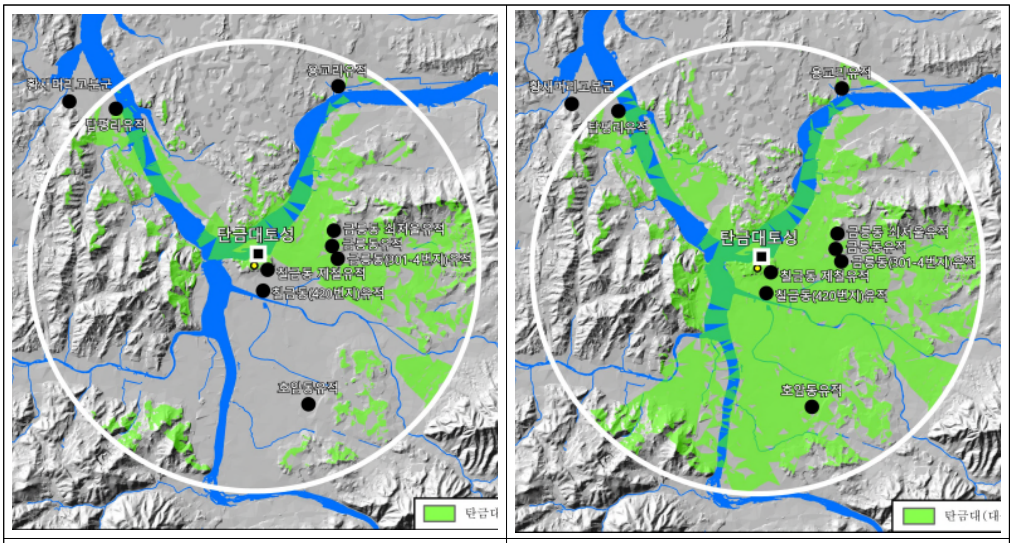
[그림 7] 충주 탄금대토성 성벽(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성 내부에서는 동벽과 인접한 평탄지에서 주거지 3기와 집수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가 말각장방형인 2호 주거지에서는 송풍관편과 슬래그 등이 수습되어 제련시설과 관련된 공방지로 추정된다. 또한 집수시설에서는 5매 단위로 포개진 철정 40매가 수습되었는데, 철정의 길이는 25.8~34.2cm이며, 너비는 3.6~5.0cm, 두께는 1.1~2.2cm이고, 무게는 평균 1,310g이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한편, 유적에서는 호, 대옹, 심발, 장란형토기 등과 같은 백제 토기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토성은 4세기 중후반경에 한성 백제에 의해 운영된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적의 위치로 보더라도 마한시기부터 운영된 충주 칠금동유적과 같은 고대 제철 생산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가 축조한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토성 내에서 송풍관 파편과 슬래그, 숫돌 등이 출토되는 제철 공방의 존재와 숫돌, 송풍관 파편, 주조철부 등과 함께 출토된 집수시설의 철정 40매 등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충주 탄금대토성은 남한강의 편리한 수상 교통을 이용한 4세기대 중후반 백제 철기 제작을 위한 중간 소재의 생산 및 물류의 거점 기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

2) 최근 김호준・전혁기(2024: 74쪽)는 탄금대토성 바깥으로 1.5km에 달하는 외성과 서쪽에 2개의 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① 탄금대토성의 가시권역 ② 탄금대(대문산)의 가시권역

[그림 8] 충주 탄금대 및 탄금대토성의 가시권역(5km) 비교

2) 충주 장태산토성

충주 장태산토성은 남한강과 그 지류인 영덕천이 합류하는 곳에 입지하고 있는데, 장미산성과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유적은 국도 건설로 인해 이미 능선의 중심부가 훼손되어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3)]

① 항공사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 원색사진2)

② 전경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 원색사진12)

[그림 9] 충주 장태산토성(장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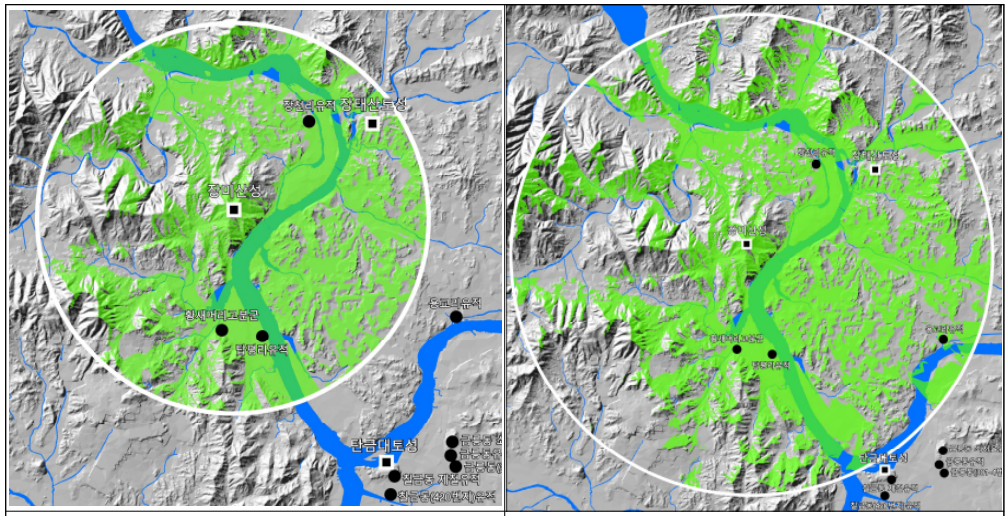
3) 김호준・전혁기(2024: 84쪽)에 따르면, 국도의 북쪽 산 정상부(해발 132.9m)에서 토루의 흔적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발굴조사 당시 청동기시대 취락 외에도 4세기대 중엽~후엽으로 편년되는 고분군(토광묘 16기, 옹관묘 3기, 석곽묘 1기)와 토루(내성-산정식산성, 외성-포곡식산성)가 확인되었다. 특히 장태산(해발 132m)의 정상부에 축조된 내성의 토루는 둘레가 약 398m이고, 아래쪽 외성의 토루는 둘레가 약 1,283m이다. 그리고 정상부의 토루 일부 및 아래쪽 토루 사이에서는 2중의 환호(環壕)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장태산토성에서 남한강쪽으로 이어지는 서쪽 능선에는 능선을 단절하여 만든 큰 호(壕)도 발견되었다(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

정상부의 토루(내성)는 중복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1차 토루는 원삼국시대~백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토루 상층에 만들어진 2차 토루는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 유물은 원삼국시대~백제에 해당하는 타날문토기편과 함께 통일신라 후기~고려에 해당하는 도기 및 기와 파편들이다.

3) 장미산성

근래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 의해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충주 장미산성은 탄금대토성과 마찬가지로 남한강이 잘 조망되는 곳에 있다.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인 장미산(336.4m) 정상부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성벽의 전체 둘레는 2.94㎞이다. 장미산성은 남한강의 수로를 통제하고, 탑평리에서 한강 유역으로 향하는 주변의 육로까지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그림 10).



① 가시권역(5km) ② 가시권역(7km)

그림 10. 충주 장미산성의 가시권역 비교

그동안 학계에서는 장미산성 내에서 백제의 조족문(鳥足文) 토기와 고구려계 착두형 철촉 및 일부 신라 토기 등이 수습되었고, 또 인근에 충주 고구려비가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백제부터 고구려, 신라까지 차례로 해당 산성을 점유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도 있었다(이솔언, 2024, 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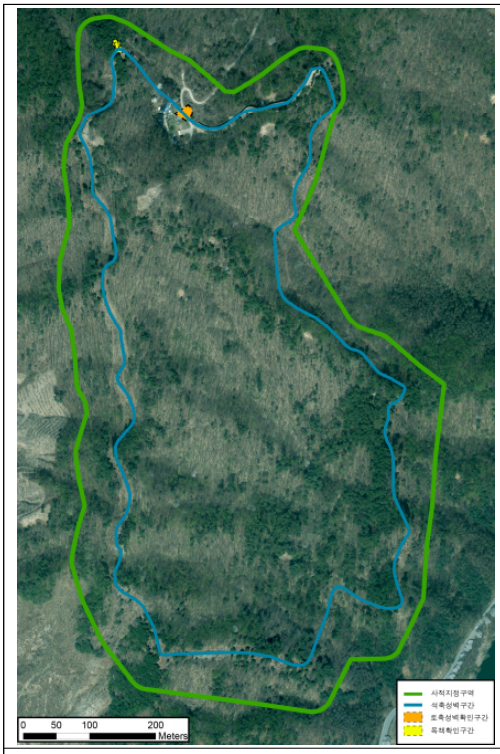
사실 현존하는 석축성벽은 암반층을 계단식으로 굴착하거나 정지한 다음 외벽 기단부를 정교하게 쌓고 할석과 점토로 뒷채움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올린 후, 내·외벽을 함께 쌓아 올렸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 한성기의 산성에서는 아직까지 정연한 석축 성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장미산성의 석축 성벽은 신라가 충주에 진출한 이후에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산성에서는 6세기대 신라 토기 외에도 조족문이 시문된 원저단경호를 비롯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한성기 백제 토기가 다수 수습된 바 있다. 이에 백제가 현재의 석축 성벽과는 다른 구조의 관방시설을 장미산에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이승우·양시은, 2022, 113~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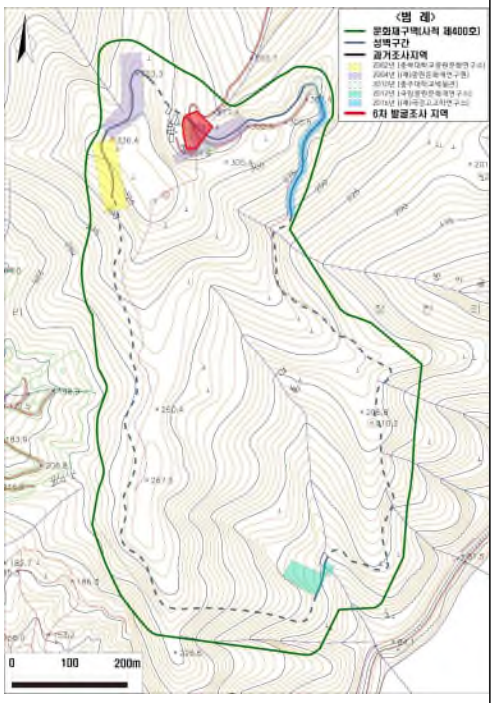
[그림 11] 충주 장미산성(Ⓒ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그런데 최근 장미산성 북쪽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계곡부를 가로지르는 석축 성벽 아

래에서 토축 성벽이 확인되었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24). 조사단 설명에 따르면 토축 성벽은 지반을 삭토하는 방식으로 정지한 후 기초부를 다지고 나서 점토와 사질토를 섞어 교호성토하여 축조하였는데, 성벽의 내측 끝단에는 계곡부에 자리한 체성부가 밀리지 않도록 석축을 하였다. 또한 내벽 석축열에는 1~1.2m 간격으로 목주를 박아 성벽을 축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석축열을 포함한 체성부는 외측면을 사선으로 깎아 낸 후 사질토로 전체를 피복함으로써 성벽을 마감하였다.



① 정사영상



②조사 현황도(ⓒ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그림 12] 충주 장미산성

② 부뚜막과 한성백제 토기 출토 양상

① 토축성벽 내측 전경[4)]

[그림 13] 충주 장미산성(ⓒ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성벽 안쪽에는 원저단경호, 소호, 평저소호, 대호, 시루, 동이, 심발, 병 등과 같은 다양한 한성기 백제 토기와 함께 부뚜막이 확인되었으며, 그 주변에서는 목곽고도 발견되었다. 이로써 장미산성은 한성기에 백제가 축조한 성곽이며, 이를 6세기 중엽 이후 충주 지역으로 진출한 신라가 석성으로 개축하였음이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미산성은 충주를 지나면서 달천과 합류한 남한강이 한성으로 향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북쪽에서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또한 남한강변의 탑평리 취락과 인근의 황새머리 고분군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과 물류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진 탑평리에서는 출입 시설이 있는 '呂' 자형과 '凸' 자형 집자리를 포함하여 모두 36기의 한성기 백제 집자리와 수혈 등이 발견되었다. 이 곳에서는 망치와 같은 생산도구와 함께 송풍관, 노벽, 슬래그 등이 확인되어 탑평리 유적에서도 철 생산과 관련한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적에서는 삼족기를 비롯하여 한성기 백제 중앙 지역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철 생산 집단과 관련된 중요한 거점 취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탑평리 인근의 황새머리에서는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 석곽묘 등도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로 편년되고 있어, 장미산성과 운영 시기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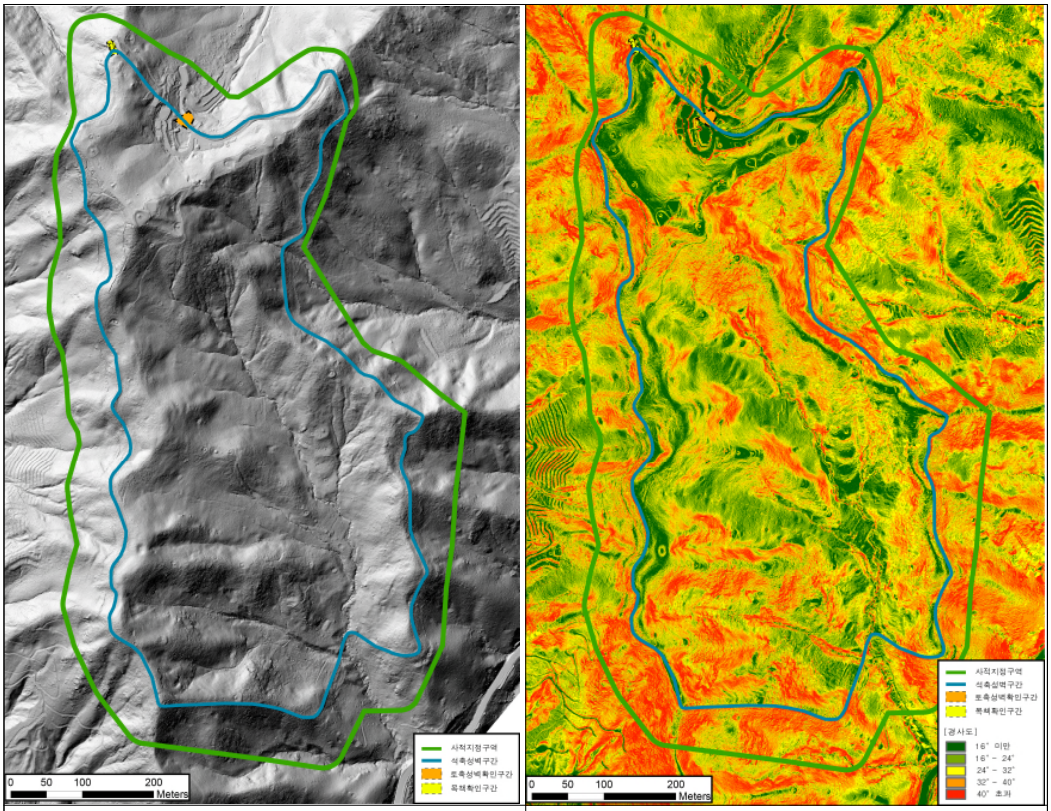
Ⅳ. 공간분석을 통해 본 한성기 백제 충주 장미산성의 구조

현존하는 석축 성벽으로 볼 때, 충주 장미산성은 장미산의 정상부 능선을 따라 남쪽과 북쪽의 계곡부를 포함하여 성벽이 축조된 둘레 2.94km의 포곡식 산성이다. 장미산 정상부(해발 336.4m)는 너비 20~30m 가량의 평탄면이 서북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150m 가량 이어져 있다. 장미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산줄기가 뻗어나가고 있는데, 동서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짧고 남북 방향으로는 길게 이어져 내려간다. 이러한 산 줄기로 인해 장미산 일원에는 비교적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북쪽은 '장미산골', 남쪽은 '큰골', 동쪽은 '방아골'로 불린다. 석축 성벽은 대부분 능선을 따라 사면과 계곡부의 상부에 축성되었으나, 남쪽으로는 남한강까지 이어지는 큰골의 아래 부분까지 내려와 계곡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산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의 폭이 좁고 남북 길이가 긴 모습을 띠고 있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원, 2024, 2쪽).

이러한 양상은 장미산성의 음영기복도와 경사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14). 우선 석축 성벽의 바깥 구간은 모두 경사도 32° 이상으로, 40° 이상의 급경사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이는 산성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어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높

4) 사진에서 도로가 지나가는 곳의 석축은 백제의 토루 위에 축조된 신라의 석축 성벽이다.

은 곳에 성벽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음영기복도 ② 경사도

[그림 14] 충주 장미산성의 음영기복도와 경사도

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북쪽 성벽의 안쪽에 해당하는 장미산 정상부와 그 일원 평탄지(해발 332~336m)이며, 가장 낮은 지점은 '큰골'을 가로질러 축조된 남벽으로 해발고도는 약 130m이다. 산성 내부 역시 경사가 심하여 완만한 평지형을 찾기 힘들고, 성벽의 최남측과 최북측의 고도차가 200m 가량 차이가 있어, 성 내부에서의 이동에도 제약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도 분석을 통해 본 산성 내부의 경우, 경사도 16° 이하의 완경사면은 북쪽으로는 장미산 정상부 일대의 평탄면과 북쪽과 동쪽으로 뻗어있는 능선 정상부 및 그 사이에 형성된 '장미산골'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벽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능선 정상부와 남쪽 계곡부(큰골)의 계단식 평탄지와 완경사지 뿐이다.

한편, 장미산성은 지형상 장미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쪽 계곡부와 남쪽 계곡부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발굴조사 지역은 충주 장미산성의 북벽 중앙부의 성벽 내외측 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이 곳은 해발 약 330~336.4m의 장미산 정상부 평탄지로부터 북쪽으로 길게 내려가는 ‘장미산골’의 상단부로, 해발 약 290m 내외이다. 장미산성 북쪽 권역에서 가장 넓은 성내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계곡부를 따라 물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서 입지상 집수시설이 설치되기에 적당한 곳이기도 하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원, 2024, 6쪽).

장미산성 북쪽 계곡부(장미산골)에 대한 경사도 분석(그림 14-②)을 살펴보면, 산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폭 20m 내외의 평탄면이 북쪽의 계곡부를 끼고 돌아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토루는 북쪽 계곡부 석축 성벽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토루는 성벽 안쪽에서 확인된 부뚜막 등의 유구에서 출토된 다량의 한성기 백제 토기를 통해 한성기에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쪽 계곡부를 끼고 조성된 토루는 경사도 분석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미산의 북쪽과 남쪽 계곡부를 따라 조성된 석축 성벽과는 달리 북쪽 계곡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 정상부와 그 능선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 의미있는 발굴조사 성과를 거둔 충주 장미산성을 중심으로 한성기 백제 지방성으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한성 백제기 성곽의 구조에 대해서 추론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나 「광개토왕릉비」 등에는 한성기 백제 성곽의 명칭이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유적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한성기 백제 성곽은 토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릉과 산지에 축조된 석축 성곽에서도 한성기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음성 망이산성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석축 성벽과는 별도의 한성기 백제 토루가 존재하고 있고, 이번 충주 장미산성의 발굴조사에서도 북쪽 계곡부에서 석축 성벽 아래로 그 이전 시기에 축조된 토축 성벽이 발견되었다. 특히 성벽 안쪽에서 확인된 백제 한성기의 부뚜막과 목곽고는 이번에 발견된 토루가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경사도 분석을 통해서는 한성기 백제 토성이 장미산 정상부와 그 북쪽 계곡을 끼고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주 지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영역화하였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충주 장미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지속되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4.10.30,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24,『충주 장미산성 6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0,『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 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2,『중원문화권 성곽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권오영, 2011,「한성백제의 시간적 상한과 하한」,『백제연구』53.
김진웅, 2021,「인천 계양산성의 조사현황과 성과」,『선사와 고대』65.
김호준, 2018,「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에 대한 재논의」,『문화사학』49.
김호준·전혁기, 2024,「충주지역의 백제 성곽과 연구방향」,『중원에서 만난 백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백제학회.
박순발, 2002,「한성기 백제의 성곽」,『향토서울』62.
박중균, 2019,「한성기의 백제산성」,『백제의 산성』, 한성백제박물관.
박중균, 2021,「풍납토성의 성벽 축조기법 및 축조시기 검토」,『고고학』20-3,
심광주, 2004,「한성시기 백제산성」,『고고학』3-1.
윤병엽, 2024,「백제의 마한 병합과 충주지역 진출 시기」,『중원에서 만난 백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백제학회.
윤성호, 2022,「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 한성백제박물관.
이부오, 2018,「3세기후반 4세기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웅천 주변 세력」,『한국고대사탐구』28.
李成市, 2021,「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목간과 문자』26.
이성준·김명진·나혜림, 2013,「풍납토성 축조연대의 고고과학적 연구-2011년 동성벽 조사결과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88.
이승우·양시은, 2022,「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고조선단군학』49.
이솔언, 2023,「중원문화권 남한강 본류역 성곽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충주 탄금대토성과 장미산성을 중심으로」,『선사와 고대』71.
이정빈, 2021,「고대·중세 음성 망이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중원문화연구』29.
정태영·정락현, 2024,「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조성집단의 성격」,『중원에서 만난 백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백제학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충주 탄금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충주 장태산·장천리·잠병리·율능리 유적』.
황보경, 2022,「남한강 지류역 성곽의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이천 설봉·설성산성을 중심으로」,『중원문화권 성곽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Abstract】

An Examination of Jangmi Fortress in Chungju as a Regional Fortress of Hanseong Baekje

Yang, Si-e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e, Seong-woo (Terrapix)

The Chungju area is a strategic site located along major land routes that cross the Sobaek Mountain Range, connecting the Chungcheong and Yeongnam regions. It is also a significant point on the Han River waterway, allowing access by boat to Hanseong via the Namhan River, a main tributary of the Han River. Additionally, as one of the primary iron-producing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ironworking activities were carried out here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Due to these strategic advantages, Chungju region was successively occupied by Baekje, Koguryo, and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Jangmi Fortress in Chungju is understood within this historical context.

Jangmi Fortress is a stone-walled mountain fortress constructed on the summit of Jangmi Mountain, which is located along a route leading into the Chungju Basin via the Han River. The remaining walls of the fortress stretch for a total of 2.94 kilometers. Although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fortress was constructed after Silla's expansion into the Chungju area after the mid-6th century, the discovery of artifacts such as Hanseong Baekje pottery and Goguryeo-style iron arrowhead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fortress may have been built earlier.

Recent excavations of the northern wall of Jangmi Fortress have uncovered an earthen wall and associated features beneath the stone wall,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n earlier construction phase. This study examines Jangmi Fortress in Chungju to evaluate its potential role as a regional fortress of Hanseong Baekje and explor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Keywords : Chungju, Jangmi Fortress, Hanseong Baekje, Silla,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